

SPECIAL FEATUR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F

R

A

N

C

O



ANNIÉE

L'Année France Corée

2015 - 2016



한국과 프랑스, 미술로 만나다, 교류하다, 나아가다

1886년 6월 4일, 당시 조선(朝鮮)이었던 한국은 '조불수호통상조약'을 맺고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성립했다. 이후 130년이 흘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 전역에서 각종 행사가 2015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리고 있다. 문화는 물론 과학, 교육, 경제, 스포츠 등 양국이 접점을 갖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열리는 행사가 300여 건에 이를 정도다. 문화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역시 미술(시각예술) 분야다. 110건에 달하는 각종 전시와 미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월간미술》은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춘 특집을 준비했다. 알려졌으나 미 공복을 전후해 한국의 근현대미술이 정립되던 시기, 한국은 작가들이 프랑스에 학업과 작업을 위해 도불(渡佛)했고 그들의 귀국은 곧 서구미술의 전파를 의미했다. 그에 영향 받아 한국 모더니즘이 일고 비평의 언어체계를 만들어 갔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정리는 곧 프랑스와의 교류사 다름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물론 미술을 통한 교류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특집의 발단인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소개한다. 프랑스 현지 취재를 통해 다양한 전시를 소개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측 인사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이밖에 한국과 프랑스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 작가들의 소감도 들어본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장을 만나 문화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서로의 거울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화의 우열을 따지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

프랑스 현지취재 = 황석권 수석기자

그들이 프랑스로 간 이유

김영호 | 중앙대 교수, 미술사



한국미술 사상 최초의 프랑스 미술유학생으로는 1925년 파리에 도착한 이종우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1922년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1937년 파리에 도착한 배운성이나 1929년 도불해 6개월간 머물렀던 나혜석도 재불 한인화가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들의 파리 체류는 일제의 압제 상황과 다가올 세계대전의 전운 속에서 그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작가들의 본격적인 프랑스 진출은 광복과 정부 수립의 산고(産苦) 그리고 전쟁을 모두 치르고 난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에콜 드 파리>의 고장 파리는 일제강점기의 동경을 대신하여 미술의 꿈을 충족시킬 새로운 예향으로 부상하였다.

1950년대에 파리에 도착한 작가는 남관(54), 손동진(54), 김홍수(55), 박영선(55), 김환기(55), 함대정(56), 이성자(58), 이웅로(58), 이세득(58), 변종하(59) 등이 있으며 이들은 향후 한국의 화단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파리에서 개최되는 <살롱 드 메>, <살롱 데 장데팡당>, <살롱 도톤느>과 다양한 국제전 그리고 현지 화랑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1960년대에도 도불 행렬은 계속되었는데 한묵(61), 방혜자(61), 문신(61), 김기린(61), 김창열(65), 정상화(67)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프랑스 입국 선배들처럼 살롱이나 화랑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창조적 열정을 묵묵히 다스려 나갔다. 이 시기의 작가 몇몇은 국내파와 연계하면서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1959년에 창설한 파리비엔날레 등의 국제전 참가를 통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한국-프랑스 미술교류사 : 문화수용과정의 문제와 대안>(프랑스문화연구 제16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8) 및 <Rêve de France: Histoire de l'échange artistique franco-coréen>(Frontières, édition Musée du Montparnasse, 2006)을 요약, 정리했다.



juin 1992 Ecole des Beaux-Arts Paris. Atelier Dupont

당시 파리 한인작가 대부분은 다양한 경향의 추상미술에 작품성향이 쏠려 있었다. 1968년에 도블해 소르본대학(파리1대학)에서 수학했고 1978년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병관 교수의 기억에 따르면 1970년대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이휘세, 양승권, 오천룡, 김순기, 김희경, 김인중, 이봉렬, 강정완, 오경환, 권영우, 하인두 등이 개인전 또는 그룹전 등을 통해 전시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추상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다. 한편 성완경은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불 한국 유학생과 미술가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에 따른 현상이자,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문화행사를 통한 외교를 강화해 국제 경쟁시대에 부합하려는 시국 정세의 분위기에 따른 것이었다. 파리로 유학을 떠난 학생은 파리국립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 de Paris)와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Paris)로 모여들었다. 또한 아카데미 그랑 쇼미에르(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와 아틀리에 17(Atelier 17) 등은 정규 과정이 아닌 입학 시기에 제한이 없는 작업실이었다.

화가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면서 얻은 이 시기의 성과로 1984년 <파리청년작가회>가 결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파리의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매년 정기전을 통해 그들의 예술세계를

1. 파리에서 만난 백남준과 김창열
 2. 1992년 에콜 데 보자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박종규
 3. 파리 아틀리에에서 작업 중인 문신
 4. 동양미술학교 학생을 지도하는 이용노
- 왼쪽 페이지 1992년 창립된 소나무 작가들. 아르스날 아틀리에에서

1. 파리 개인전 갤러리 앞에서 김환기와 김향안
2, 3. 1961년 바스티유광장 옆 작업실에서 박서보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참여 작가를 보면 권영호, 김남용, 김선태, 김중식, 박승순, 백진, 변창건, 안종대, 윤봉환, 이용순, 장경엽, 정충일, 조용신, 조택호, 차명혜, 홍승혜 등이 있다. 1980년대 이들의 작품 경향은 일관된 하나의 형식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캔버스회화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한편 진유영과 백수남 등은 그룹이나 집단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현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또한 1973년에 도블해 장식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정보원과 1983년에 도블해 5년간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같은 대학에서 판화를 전공한 곽남신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파리에 마련된 한인작가들의 집단 창작공간

1990년대는 파리로 건너와 현지 미술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한인 청년작가들이 현지 화단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시기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재불작가 전체 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미한 숫자이지만 예전에 비해 현지의 화랑과 전속 내지는 부분적인 계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초기 파리체류기간의 문화적 갈등 단계를 벗어나 고유한 삶과 예술의 틀을 지니기 시작한 세대라는 점에서 당연한 추세로 보인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면 최현수가 발렉스(Elisabeth Valleix), 유선태가 라비뉴-바스티유(Lavigne-Bastille), 황호섭이 푸르니에(Jean Fournier), 안종대가 도르프만(Patricia Dorfmann), 조택호가 레스코(Pierre Lescot) 등 파리의 의욕적인 화랑들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고병진이 카지니(Philippe Casini)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고 전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1990년대에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은 파리 거주 한인작가들이 집단적 작업공간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들은 1992년 파리의 남서쪽 센 강변에 위치한 길이 150미터에 폭 33미터 그리고 높이가 12미터나 되는 거대한 철골구조물을 장기 임차하였다. 과거에 탱크 등의 대형 병기 수리를 위해 사용되던 공간을 50개로 분할해 개인 아틀리에로 내부변경을 함으로써 새로운 파리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집단의 이름은 '아르스날(ARTsenal)'이라 하고 한국어로는 '소나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운영했는데 한국 작가에게 배당된 공간은 전체 인원의 반수인 25명 안팎이었다. 앞서 언급한 파리 청년작가 중 몇몇을 포함해 곽수영, 권순철, 김선태, 김성태, 김형기, 박승순, 백진, 변창건, 이영배, 장승택, 정재규, 조용신, 최예희, 홍순명 등이 회원으로 있고 이들은 비디오, 설치 등의 조형 방법과 재료 사용에 있어 사진, 밀랍, 유리, 합성수지 등을 이용한 실험적 경향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소나무 그룹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시설을 찾아나서는 2002년까지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료 외국인 작가들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시도록을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밀도 있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 한불 양국의 문화교류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화가들은 프랑스 현지의 평론가들과 화상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활동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점차 늘게 되었다. 미술시장 차원에서도 이전과 다른 교류가 진행되었는데 1996년 피악(FIAC)이 주최한 <한국의 해>가 대표적인 사례다. 피악 운영위원회는 매년 한 나라를 초대국으로 정해 그 나라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왔는데 이 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선정된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국내 15개 화랑이 집단으로 초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35명의 한국 작가가 파리의 미술시장에 소개되었다. 이 시기 이후에 국제미술시장 참가를 위한 정부기금이 마련되었고 한국 화랑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는 현상을 맞게 된다.

새천년의 시대에 들어서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적 교류는 국가적 차원의 것으로 점차 공식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파리 외곽의 집단적 작업공간인 아르스날이 계약 종료와 함께 폐쇄되면서 파리는 대안적 공간을 건립하게 되었고 2002년 소나무 그룹의 일부 회원들은 이시레 물리노(Issy-les-moulinaux)시가 새로 건설한 창작공간인 '아르쉬(Arche)'로 입주했다. 아르쉬는 전철 교각의 아치를 이용해 만든 10여 개의 독립된 반원형 목조건물로 이전의 아르스날에 비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문화교류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곳에 입주한 화가는 모두 27명이며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이 한국 작가였다. 입주 작가 명단을 보면 곽수영, 권순철, 박동일, 손석, 유혜숙, 윤영화, 이민호, 이영배, 정재규 등이 있고 후에 류이섭, 이수영, 전강욱 등이 합류하였다.

2004년에는 파리국립주드폼미술관(Galerie nationale Jeu de Paume)에서 한국 작가를 위한 대규모의 초대전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교류 차원의 이벤트가 열리게 되었다. 1965년 파리에 건너온 후 프랑스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해온 <김창열 초대전>이 그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초대된 이우환의 1997년 전시를 시작으로 프랑스 현지 국립미술관에서의 전시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김창열의 초대전시는 그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정점이 되었다. 2006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한불우호통상조약을 맺으며 수교한 지 120주년 되는 해로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양국의 수도 및 주요 지방도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올해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았다. 기관의 차원에서 다양한 전시와 학술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지만 아쉽게도 미술사적 성과를 발굴하거나 교류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행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가 펼쳐진 이후 프랑스에서 유학한 작가들 사이에서 체류국의 고유한 문화사회적 속성과 대질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가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영국 유학생 집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오늘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접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랑스의 한인작가 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나 전시 소식은 듣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작가들의 외국전시가 줄을 잇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제 유학의 의미와 가치평가의 방식은 제3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이다.

문화교류사적 측면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 4. 1964년 리옹 여행에 나선 석란희
- 5. 1955년 작업실에서의 원수열
- 6. 에콜 데 보자르 유학시절 작업실에서의 홍순명





1. 1993년 파리 아르스날 작업실의 김종학
2. 파리 국립미술학교 유학당시 송번수
3. 1989년 카상(Cachan) 작업실의 정보원
4. 김기린의 <안과 밖>이 걸린 작업실
5. 파리 작업실의 권순철

점들이 눈에 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방법이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진정한 상호교류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 평론가 유준상의 지적처럼 1980년대 이전까지 한불 미술교류는 일종의 짝사랑 같은 것이었으며 한국예술은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소년기의 환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립과 자가당착의 역사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세계문화의 구성단위로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경계의 의미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세계의 미술지형도가 재편되는 1980년대부터였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각국과의 문화적 접촉은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본격화된 국제화의 물결 앞에서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과 프랑스 교류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선 문화교류란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설정되어 있는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질성을 찾는 일은 내용의 인식에 있지 않고 내용을 인식하는 형식에 있다. 타자성을 깨닫는 것이 곧 교류의 근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모방 혹은 동일화의 과정으로 여겨온 문화적 교류의 타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경계를 파기하는 일은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벽을 무화시키는 일이다.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그것이 교류의 근간이 되는 사연은 여기에 있다. •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해 영은미술관이 2부에 걸쳐 마련한 전시. 1부는 3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혜자-빛의 노래전〉으로 열렸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는 2부 전시다.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작가 12인(故 김환기 故 이성자 故 문신 김창열 박서보 이우환 석난희 송변수 권순철 신수희 정보원 홍순명)과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 프랑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12인(김기린 방혜자 진유영 원수열 박승순 김종학 유봉상 남기호 유혜숙 박종규 강영길 채성필)의 작품을 모은 전시다. 전시와 함께 현지 활동 당시 사진도 함께 선보여 아카이빙의 성격을 더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프랑스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작가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전〉 전시광경

전폭적인 작가 지원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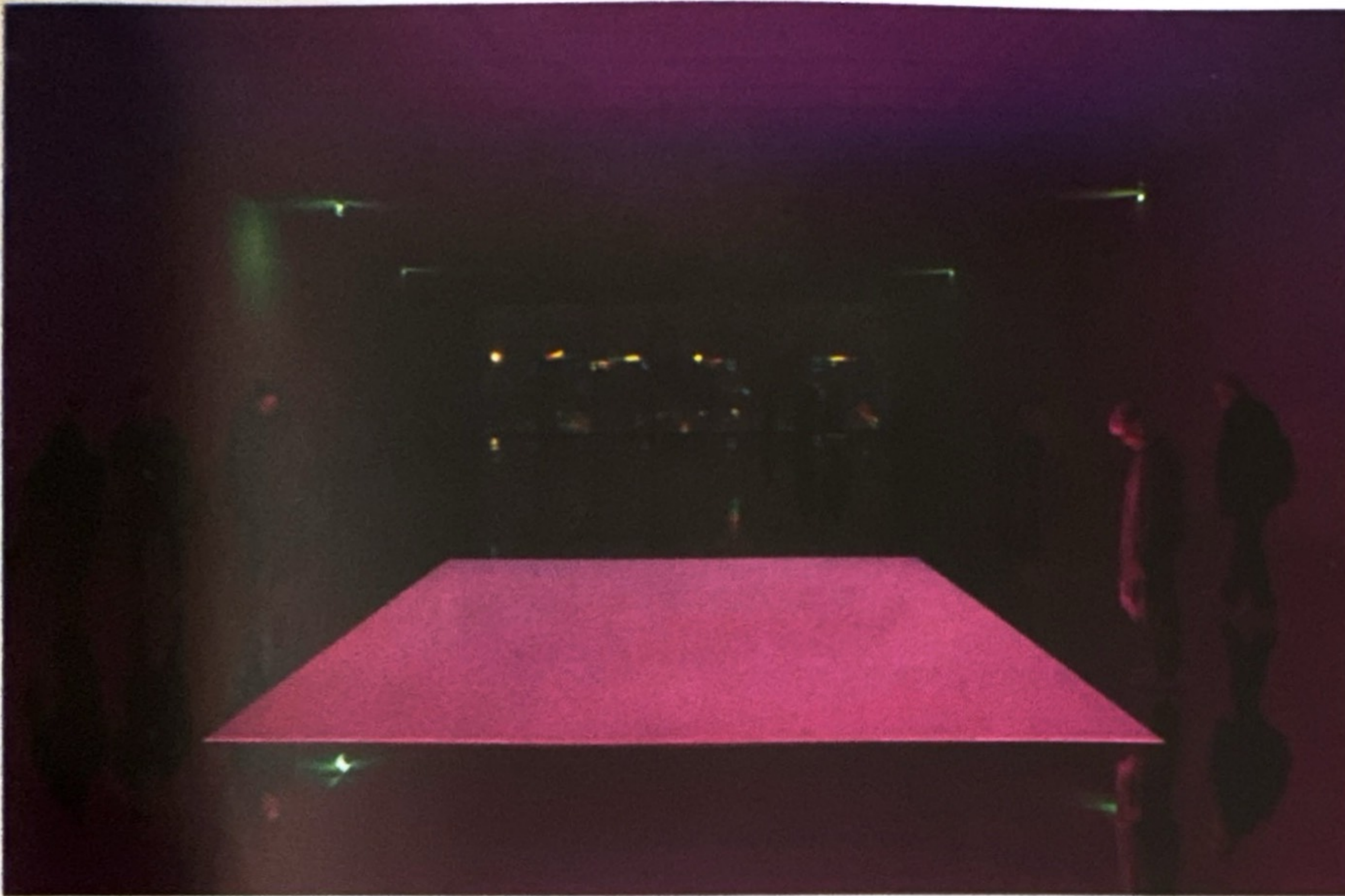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와 프랑스 팔레 드 도쿄 미술관의 파비용 리서치 랩 간 맺어진 교류 파트너십으로 본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파리에서 작업하며 지내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팔레드도쿄 미술관 산하의 파비용 리서치 랩 소속으로 활동한 것이었지만, 파비용 리서치 랩에 숙식 등의 주거환경이 부설되어 있지 않아서,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가 지원하는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왼쪽 사진) 건물의 한 스튜디오에서 거주하며 파비용 리서치 랩이 있는 팔레 드 도쿄 미술관에 빈번히 들르고 미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8개월간의 생활을 이어 나갔다. 파리국제예술공동체에는 300명 가까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거주한다. 미술인뿐만 아니라 음악인-작곡가, 연주자, 성악가 등-도 거주해 층마다 배치된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연주 소리가 이곳의 예술적 다양성을 감각으로 일깨워준다.

지난 8개월간 전시와 퍼포먼스 이벤트 등의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진행해야 했다. 작업량과 일정이 무척 부담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풍족한 후원과 지원이 이어진 8개월이었다. 먼저, 프랑스 문화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파리

국립오페라단(Opéra national de Paris) 소속 안무가와 무용수들과의 협업이 지난주에,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인 팔레 가르니에(Palais Garnier)에서 6인의 싱어와 6인의 댄서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선보일 수 있었다.(오른쪽 사진) 기관 대 기관의 유연한 파트너십 체계에 힘입어 제작비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장르를 넘어선 파리 내 각종 인프라구조의 중추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었다. 파리 미술환경의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 시각적, 감각적 매혹이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파리의 미술환경에서 매혹은 마치 화폐처럼 통용된다고나 할까. 이것이 프랑스 문화를 현란하고 눈부시게, 반면 어딘가 가볍고 살랑거리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다.

본인은 삼성문화재단 후원으로 파리국제예술공동체 건물에서 앞으로 1년 더 체류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8개월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다양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사운드-이미지 전문가, 안무가, 무용수, 작곡가, 지휘자, 싱어 등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인력들이 이후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를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김아영 작가



김수자 <To Breathe: Invisible Mirror, Invisible Needle>(단색 평면설치) <The Weaving Factory>(사운드)



김수자

To Breathe Kimsooja

2015.10.26~2016.1.4

퐁피두-메스 센터(Centre Pompidou-Metz)

퐁피두-메스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작가 전시의 주인공은 김수자였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작가인 김수자는 이번 전시에서 <To Breathe: Invisible Mirror, Invisible Needle>과 사운드 설치작업 <The Weaving Factory>,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호흡: 보따리> 등을 선보였다.



정현: 서있는 사람

L'homme debout

3.30~6.12

왕궁정원(Jardin du Palais Royal)

파리 중심에 있는 팔레 루아얄에 50여 점의 나무 사람이 설치됐다. 정현 작가의 개인전 <서있는 사람>에 출품된 작품. 침묵을 재료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형상화하여 거칠게 드러냈다. 반듯하게 잘린 나뭇가지로 대표되는 프랑스 정원 특유의 조경과 작업의 형태와 색채에서 묘한 대비를 이룬다.